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사업' 2호 탄생…고령농업인 안정적 노후보장

등록 2025.10.23 16:46:26



[진주=뉴스시스]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전경.(사진=뉴스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스시스] 정경규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는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한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사업' 2호 가입자가 탄생했다고 23일 밝혔다.

'2호 가입자'는 산청군에 거주하는 고령 농업인 정모(76)씨는 소유농지(3186㎡)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9년간 매월 100여만원의 농지연금과 13만원 상당의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받는다.

해당 농지는 20대 농업인에게 9년간 장기 임대해 990만원의 임대소득도 거두게 됐다.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 후 농지연금에 가입하고, 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에 매도하는 농지이양 방식이다.

지원 혜택으로는 농지연금(월 300만원, 최대한도)과 농지이양 은퇴직불금(1ha기준 월 40만원, 최대한도 160만원), 농지임대료, 농지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모씨는 "고령 농업인으로 농사짓기 힘든 상황에서 영농 은퇴를 고민하던 중 좋은 제도를 통해 노후생활을 계획하는 데 있어 많은 보탬이 됐다"고 했다.

농어촌공사 진주산청 이은수 지사장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고령 농업인의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도와 농촌 지역의 활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